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칼럼

8번 문제의 기막힌 우연	037
과학적 근거의 짚기	061
국어의 사주팔자	094
문제집의 불편한 진실	136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159
4800초의 시간 컨트롤	187
2014년 수능 시험의 법칙 적용 쾌거!	215



Rule 7 Message!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만으로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려줄 수 없습니다. 국어 점수는 언어적 감, 국어 지식, 풀이 노하우 등 다양한 학습이 고등 사고를 거쳐 나오는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 Plus Item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국어 시험의 7가지 법칙은 어쩌면 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느끼는 무의식적인 문제 풀이의 감을 학습의 테마로 했으며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풀이 방법 및 기술서류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지문은 생략하고 해설 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일 만에 책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7가지의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100%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주관적인 국어 과목에 높은 확률의 규칙성을 이론화·유형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수능(80%)을 중심으로 중3, 고 1~2 성취도 평가 및 국어교사 선발문제까지 확대하여 폭 넓은 시기(1994~2014)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국어 시험의 법칙이 특정시기, 특정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국어 지식을 100% 쏟아 낼 시험의 감 혹은 문제 풀이의 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감(感)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message continue

<http://cafe.naver.com/rule7>

Rule 7 사용방법 & 주의사항

1. 각 Rule의 안내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2. 연습문제는 A, B, C 세 단계로, 한 단계를 풀고 반드시 해설 확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연습문제의 지문은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설에 별도 탑재했습니다.
4. 연습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하여 풀어야 시험의 감(感)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5. 연습문제 채점 후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해설을 통해 문제 풀이의 감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6. 교재에 소개된 시험의 법칙, 시험의 원리, 출제 지침 등은 국어의 감각과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니 이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어에는 주관적인 학문 특성상 객관적인 수학처럼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7. 본 교재의 학습 목적이 여러분의 평소 국어 학습에 시험의 감(感)과 문제풀이의 넓은 안목을 더해 실전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ule 7 event!

하나, 교재 학습 후 친구에게 추천할 경우 (카페에 구매자, 추천인 ID 등록)
둘, 교재 학습 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셋, 교재의 오류를 신고할 경우 (오타, 정답오류, 해설오류 등)

참여 수험생 모두에게 문화 상품권(만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Rule 7 카페에서 상세 안내

▶ <http://cafe.naver.com/rule7> (자료 업데이트, Q & A, 국어 전문 칼럼)

시험의 법칙



Rule 6

[대립 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반대 맥락의 선지 한 쌍이 있다면 그 한 쌍의 선지 중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일시적 행동이다. 왜냐하면, 성격은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을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① 급하다 혹은 ④ 느긋하다 중 하나가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능을 포함한 국어 시험에서 대립(반대 혹은 모순)되는 선지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80%이다. 이것이 국어 시험의 6번째 법칙인 **【대립 선지】**의 법칙이다.

VI. 대립-선지의 법칙

- 1) 선지를 분석한다.
 - 2) 선지 중에서 서로 대립 혹은 모순되는 것을 찾는다.
 - 3) 대립의 형태를 파악한 후 정답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 1:3 대립 (약 99%) 1:2 대립 (약 90%) 1:1 대립 (약 75%)

다음은 **【대립 선지】**의 법칙이 1:1 형태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대립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잘 살펴보자.

01

안내 문제

<캐츠>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2011 수능 |

- ①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 ② 감독이 고양이들의 등장 장면에서 채택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오히려 방해해서 실망했어요.
- ③ 늙은 암고양이의 회한이 담긴 노래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요.
- ④ 기발한 조명과 의상이 사용된 것을 보고,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 ⑤ 의인화된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이 노래들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대립? 대립!

도입 문제처럼 대립 선지를 쉽게 찾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대립은 두 내용이 반대
의 맥락을 이루거나 서로 모순되는 짝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수는 남자이다 ↔ 영수는 여자이다
난 연필보단 볼펜이 좋아 ↔ 난 필기구 중에선 연필이 제일 좋아
그 여자는 어제 집에만 있었다. ↔ 그 여자는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

문제의 선지 ①, ④를 살펴보자.

① 멋진 춤과 ~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정답)



④ 기발한 ~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선지 ①, ④는 함께 있으면 모순되는 반대의 맥락이다. 왜냐하면, ④의 원작의 주제에 걸
맞다는 원작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하기에 ①의 원작과 관계없다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선지가 길지만 반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짧아서 대립 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①, ④가 1:1 대립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75%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
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
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 지문에서 〈캐츠〉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 즉 원작의 충실한 전달이 아닌, 춤과 노래의 다채로움
과 완성도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다는 선지 ①은 최근의 관점으로 가장 적
절하다.

이번에도 선지가 1:1 대립 형태를 이룬다. 대립 부분을 잘 찾아보자.

02
안내 문제

다음 '원문'을 '은영'과 '서연'이 각각 요약하였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4 예비 수능 |

- ①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 ②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 ③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반복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여러 내용을 나열하지 말고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긴밀하게 연결해야 해.
- 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발문에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서연이 은영보다 요약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언은 뛰어난 사람이 그보다 못한 이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문의 '상호 평가'가 무언인지 알고 넘어가야 하지만 지금 필요한 일은 아니다. 발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대립을 이루는 선지를 바로 찾아봐도 된다.

선지 ①, ②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①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정답)



②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왜냐하면 선지 ①의 찾아서 선택은 그 안에 있는 그대로라는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②의 바꿔 써야 해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전 1번 문제는 대립 부분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어서 대립 부분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다음과 같이 숨은 의미를 겉으로 표현하면 대립 부분이 쉽게 눈에 띈다.

① 원문의 (있는 그대로)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정답)



② 원문의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그래서 1:1 대립을 이루는 선지 ①, ②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75%이다.

【대립 선지】의 법칙, 출제자는 알고 있을까?

당연히 알고 있다. 시험 출제 지침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① 객관식 출제 지침 中

“각 선지의 내용이 확연하게 대립을 이루어
정답을 찾는데 단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출제 지침을 의식한 출제자는 대립 부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위 문제처럼 숨기는 것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하여 정답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원문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등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 왔다.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밀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예측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하지만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의 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20세기 중반에 나무 연필은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은영’의 요약문

나무 연필들은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왔다. 한때는 타자기와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예측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의 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서연’의 요약문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의 도전을 받아 왔지만, 오늘날까지 대중의 필기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 원문의 중심 문장은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이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은 은영의 요약문에도 있기 때문에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하라는 선지 ①은 조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음은 1:2 대립 형태이다. 대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자.

03

안내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3 수능 |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듭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먼저 【대립 선지】의 법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VI. 대립-선지의 법칙

- 1) 선지를 분석한다.
 - 2) 선지 중에서 서로 대립 혹은 모순되는 것을 찾는다.
 - 3) 대립의 형태를 파악한 후 정답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 1:3 대립 (약 99%) 1:2 대립 (약 90%) 1:1 (약 75%)

3번 문제는 발문의 내용을 지문과 〈보기〉 등 읽어야 할 것이 많아 부담이 되는 유형이다. 하지만 시험의 법칙을 생각하여 선지에서 답을 예상하고 지문과 〈보기〉를 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수험생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듯 심리적 조절이 필요한 실제 수능 시험에서 시험의 법칙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셈이다.

눈을 크게 뜨고 대립 선지를 찾아보자.